고난 속에 힘 불어넣는 부처님 가르침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⑭ 지장십륜경1 – 지장보살과 츰부다라니

어느 날 나는 부처님의 가호와 가피가 너무나 간절했다. 내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정진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물러날 힘도 없었다. 그 무렵 벌판에 있는 논에 붉은 흙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농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진흙에 가까운 흙이 있는 논을 밭을 만들기 위해선 흙을 바꿔주거나 땅을 깊이 파서 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땅이 그 힘을 잃어 좋은 작물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의 힘을 북돋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땅도 변화하려 할 때나 혹은 힘을 잃으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데 중생이 이런 상황이면 부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르침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대장경을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특별히 그런 내용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책상위에 둔 일과수행집에서 〈십륜경〉, 서품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벅찬 환희가 차올랐다. 무지개 찾아 떠난 소년이 집에 돌아와 보니 무지개는 거기 있더라는 얘기처럼 나도 그 가르침이 언제나 책상에 있었는데 멀리서 찾느라 애쓰고 돌아다닌 것이다. 거기 그 책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지친 영혼들을 위한 힘을 돋우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 평소에 진언독송에 관심조차 없었던 내게 도반들이 열심히 외던 〈츰부다라니〉를 품고서 말이다.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輪經)〉, 줄여서 〈십륜경〉이라 부른다. 당 현장이 번역했고 한글대장경 54권 p288에 수록되어 있다. 전체가 8품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수나라 신행(540~594)이 일으킨 삼계교의 소의경전이다.

〈십륜경〉에서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험난한 말세인 오탁악세에서 정법을 전하는 부처님의 법륜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질문한다. 부처님은 관정왕의 십륜(十輪)을 비유로 들어 열 가지 부처님의 힘(十力 - 佛輪)으로 말세의 중생들의 악업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사찰의 주지로서 중생교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이 경에 모두 있다. 정치하는 모든 이들은 한 번쯤 이 경을 읽고 지도자가 가야할 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으면 한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상과 철학을 담은 내용보다 오히려 삶에 힘을 주는 가르침이 더 그립다. 사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은 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처음 불교를 만난 이에게는 다정하게 고민을 해결해주고, 공부와 수행을 하는 이들에게는 한 단계 높아진 가르침을 통해 수행력이 높여주고, 지도자가 될 이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와 그리고 권리에 대해 냉엄한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대기설법의 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살아갈 희망을 잃은 이들에겐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십륜경〉 서품에 등장한다.

부처님께서 거라제야산에서 월장경을 설해 마치실 때, 하늘에서 법의 음성과 함께 아름다운 꽃과 보배장식과 의복이 비처럼 내려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저절로 다 입혀졌고 손에는 각기 여의주가 들려져 있었다. 대중은 너무 놀라 여의주에서 나오는 광명을 바라보니 온 세상 부처님들이 다 모이시고 한량없는 대중들이 공경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광명으로 인해 모든 병든 이들이 다 나았고, 옥에 갇힌 이들은 풀려나고,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때, 무구생 제석천이 부처님께 누가 이런 신통을 보이는지 그 까닭을 물었다.

"지장보살이지, 그는 과거 무량겁동안 부처님 안 계신 오탁악세에서 중생들을 언제나 돌보았다. 지금도 여래를 공양하려고 왔다가 너무 환희심이 나서 그대들에게 신통력으로 공양한 것이다. 이 보살은 여의주와 같아서 온갖 재물과 보배를 비처럼 내려 중생들이 구하는 바를 따라 그 모두를 만족시켜 준다. 마치 선근을 키워주는 기름진 밭과 같단다. 자, 지장이여, 이제 여기로 나오시라."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수행은 새옹지마 아는데서부터 시작

〈塞翁之馬〉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⑬ 금강경 제 16분의 응용 2

중국의 고사성어(古事成語)에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다. 새옹이라는 말은 변방(邊方국경지대)에 사는 노인(翁)이라는 뜻인데, 새옹지마란 인생의 길흉화복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중국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가장 애지중지하여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말이 집을 나가 버렸다. 그러나 이 노인은 그리 실망하지 않았다. 주위사람들이 위로 하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도 있지"하며 낙관하였다. 과연 이 노인의 낙관대로 집을 나간 말은 또 한 마리의 말을 끌고 들어온 것이었다.

노인은 별 반응 없이 "인생의 길흉화복은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아야 알게 되겠지요"라고 대답할 뿐 전혀 들뜨지 않았다. 정말 노인의 말대로 새로 들어온 말은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노인의 아들이 새 말을 타다 낙마하여 다리가 골절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참 아니 되었네요"라고 위로하였다. 이 위로에도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길흉화복은 알 수 없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 나라에서 큰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모두 전쟁터로 징집되었는데, 전화위복이라 할지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은 용케 징집에서 면제됐다.

이런 사실을 두고 삶의 길흉화복은 알 수 없다 하여 새옹지마라는 말이 탄생된 것이다. 새옹지마라는 고사성어와 금강경 16분을 같이 연관지어서 살펴 본다면 길한 일, 흉한 일이란 것이 본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 길(吉)이 흉(凶)으로 변하기도 하고 흉이 길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변방에 있는 노인은 역경이 있을 때 역경이라 이름 짓지 아니하였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강경 제 16분의 말씀을 활용한 것이었다.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기고 천대를 받게 된다면 노인이 애지중지하던 말을 잃어 버려 괴로운 심정을 금강경 16분의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에 비유할 수 있다.

노인은 주위사람들의 위로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쁜 일 뒤에는 좋은 일도 있지"하며 낙관하였는데, 이러한 낙관을 〈금강경〉에서는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으로 표현하였다. 수지독송하는 마음, 즉 늘 부처님 향하는 마음이 나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관하게 만든 것이다. 이 낙관은 결국 좋은 일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일찍이 선지식께서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하신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도 일본사람을 무시하며 또 증오한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은 항상 일본에 피해를 준 적이 없음은 물론 늘 우수한 문화를 전달하여 왔는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를 괴롭혔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일본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원인을 잘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 조상이 일본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을 어떤 원인을 제공했음을 알게 된다. 우리 조상이 일본을 침략하지 않았고 훌륭한 문화를 전달하여 도와준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사람을 형편없이 무시한 것도 사실이었다.

'이금세인(以今世人) 경천고(輕賤故) 선세죄업(先世罪業) 즉위소멸(則爲消滅)'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기고 천대를 받는 연고로 전생의 죄업이 바로 소멸된다. 그러나 금강경의 말씀처럼 들뜨고 잘난 척하는 마음이 내리막길을 가게 하는 원인임을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아들은, 낙마의 역경에 남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선세죄업으로 알고 즐겁게 받아들였기에 다시 좋은 일을 불러왔다고 하겠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生死의 일은 크며 無常은 신속하다

생사어시(生死於是) 시무생사(是無生死)라, 죽고 사는 것은 마음에서 나왔으니 시심마의 시(是)에는 생사가 없는 것이다. 가고 옴이 없는 생사가 일여(一如)한 본성(本性)에 주(住)함이 여래(如來)의 참모습이며 망상(妄想)을 벗어난 우리의 본래 자성(自性)자리 이다.

〈신심명〉에 보면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망상(妄想)이고, 일심불생(一心不生)이면 만법무구(萬法無垢)요 무구무법(無垢無法)이면 불생불심(不生不心)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 생각도 난 바가 없으면 만법(萬法)에 허물이 없고, 마음이 오염서 벗어나면 법도 없고, 난 바가 없으면 마음 또한 없는 것이며, 만법을 대하되 자기 욕심을 내지 않음이니 탐심(貪心)과 진심(嗔心)을 떠났다는 것이다. 좋다 싫다는 마음이 없고, 너도 나도 없고, 없다는 생각까지도 다 떨어지고 없으면 그것이 바로 생사해탈(生死解脫)인 것이다.

대주혜혜선사에게 스님은 공덕(功德)을 어떻게 드리십니까? 하고 묻자, 기래끽반(飢來喫飯) 곤래면(困來眠)이라고 답했다, 즉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잠잔자는 의미이다.

그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재차 묻자 선사는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 잘 때는 잠만 자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밥 먹을 때 욕심(慾心)으로 먹고, 잠잘 때는 꿈(夢) 속에서 온갖 생각을 일으킨다네"라고 답했다. 그래서 자나 깨나 시시비비에 휩 쌓이고 생각이 분별심을 항상 따라 가는 것이 중생병(衆生病)인데, 한 생각이 날 때 바로 알아 차리고, 그 뿌리를 잘라 버리고 그 경계로부터 내 안의 자성(自性)자리로 되돌려

연기의 이치를 '이 뭣고' 로 관(觀)해 깨달았을 때
생사고락 벗어난 진정한 열반의 경지에 들 수 있다

놓는 극약처방 약(藥)이 바로 '시심마 이 뭣고' 인 것이다.

우리가 삶속에서 거짓 나인 가아(假我)를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생을 보호하고 만족시키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는 뜬구름 같은 허망한 환영(幻影)임을 깨닫는다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목숨을 뒤로 하고 헛된 그림자를 위하여 순간을 투자하며 헛되이 일생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각 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 여쭈었다. "생사(生死)의 일이 크며, 무상(無常)은 신속합니다" "어째서 무생(無生)을 체득(體得)해 빠름이 없음을 요달(了達)하지 않는가?"

"체득한 즉 생(生)이 없고, 요달한 즉 본래 빠름이 없습니다" 하니, 육조스님이 "옳고도 옳도다"고 하셨다. 어떻게 체득하고 요달할 수 있겠는가?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떠오르는 허망한 한 생각을 시심마 이 뭣고로 그 뿌리를 짤라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을 공(空)으로 만드는 것뿐이다. 진여의 성품은 허공과 같아서 거기엔 생도 없고 사도 없으며 있음도 없음도 없고 동정간에 티끌만한 법도 붙을 수가 없는 시인 우리의 본고향이다. 내가 본래불(本來佛)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은 그 시(是)자리는 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생사는 꿈속에 있는 것이지 꿈을 깬 진여실상(眞如實相)에는 없는 것이다. 그 꿈을 깨는 유일한 최신 무기가 또한 '이 뭣고' 인 것이다.

죽음이란 존재(存在)를 형성한 조건 변화에 따라 화합(化合)되었다 흩어지는 것이니 본래 텅 빈 하늘에 뜬 구름이 스스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푸른 하늘 그 자체의 여여한 참성품은 나고 죽음을 따르지 않으며, 그 당처가 열반 적정인 참나(眞我)이며, 나(我)라고 집착(執着)하는 육신이 조건 따라 잠시 일어난 뜬구름과 같음을 통찰(洞察)해 여실히 볼 때, 즉 연기(緣起)의 이치(理致)를 '이 뭣고' 로 관(觀)해 깨달았을 때 생사를 벗어난 열반인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띠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따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 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 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돌때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신화 종합 불사 안내

■ 전통한옥 신축 철거 전문
■ 사찰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인등, 연등 설치
■ 9평 산신각, 요사채, 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A급. 요사채 가능 (1천 2백만원)
■ 14평 요사채. 상태좋음, 가격저렴 (1천 2백만원)
■ 60평 법당, 대중간. 가격저렴 (1억 2천만원)
■ 석탑 5~7층 다수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1천만원 세 있음)
■ 다수의 사찰 매물 있음
■ 이동식 주택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010-6545-2020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 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